



신발장사 아저씨, 1억원 당첨!

불이 비가 되어 내리는 꿈을 꾸고 자치복권에 당첨된 권 모씨(36, 전남 화순읍). 이런 꿈은 난생 처음이란다. 불꿈도 횡재꿈, 1억원에 당첨!

동네에서 조그맣게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 권씨. 일찌감치 장사길에 들어선 그는 신발만큼은 사람들이 못살아도 신고는 다녀야 하는 아이템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20대 중반부터 지금껏 꾸준히 해오고 있다. 물론 이 장사를 하면서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결혼해서도 부인과 함께 장사를 하며 어렵지 않은 살림을 꾸려오고 있다.

“장사도 이것저것 손대다 보면 자기만의 아이템 노하우가 생길 것 같지 않아 처음부터 한길만을 파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뭐만 보면 누군지 안다듯이 지금까지 10여년 신발장사를 하고 나니까 손님 얼굴만 봐도 어떤 신발을 살건지 알겠습니다.” 권씨가 장사를 끝내고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는 시간은 10시. 집이 바로 옆에 있어 출퇴근이라고 할 것도 없고 모든 끼니도 집에 가서 해결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있어도 피곤하지 않다.

그가 이번에 당첨된 자치복권 1억원은 그야말로 권씨에게는 아직까지도 얼떨떨한 사건이다. 평소에 꿈을 잘 꾸지도 않고 꿈도 별로 믿지 않는 그가 도저히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생생한 꿈을 꾸는 것.

“제가 어느 한 넓은 광장 한 가운데 혼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불기둥이 마구 제 머리로 쏟아지는 거예요. 불덩이 비 같았어요. 그리고는 무지개 모양으로 불기둥이 하늘에서 꾸며지더니 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꿈 얘기를 들은 권씨 부인은 손바닥을 딱! 쳤다. 즉시 복권을 사오라고 보냈고, 거짓말처럼 그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된 것이다.

비

한 용 운

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줍니다.

비는 해를 가리고 하늘을 가리고 세상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비는 번개와 무지개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번개가 되어 무지개를 타고 당신에게 가서 사랑의 팔에 감기고자 합니다.

비오는 날 가만히 가서 당신의 침묵을 가져온대도 당신의 주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비오는 날에 오신다면 나는 연(蓮)잎으로 웃웃을 지어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비오는날에 연잎 옷을 입고 오시면 이 세상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비 가운데로 가만히 오셔서 나의 눈물을 가져가신대도 영원한 비밀이 될 것입니다.

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줍니다.